

주요 경쟁시장 관광정책동향

제19-3호(2019.10.18)



제주관광공사
JEJU TOURISM ORGANIZATION

문의 : 제주관광공사 연구조사센터

목 차

I. 중화권시장	1
1-1. 중국	1
1-2. 대만	2
1-3. 홍콩	2
II. 일본시장	2
III. 동남아시아	3
3-1. 베트남	3
3-2. 인도네시아	4
3-3. 싱가포르	4
3-4. 말레이시아	5
3-5. 태국	6

I. 중화권시장

1-1. 중국

○ 하이난(海南) 국제관광소비센터 건설을 위해 3가지 정책 지원 예정

- 국가이민관리국은 △하이난으로 입국하는 크루즈 외국인 단체 관광객 15일 비자 면제, △크루즈 관광객 승선 수속 간소화, 크루즈 관광·요트관광 출입국 수속 간소화, △의료목적으로 하이난을 방문한 외국인 환자 및 그 동반가족에 대하여 하이난 병원이 발급한 증명서가 있을 시 비자 및 체류증 신청 등 정책을 논의 후 지원할 예정

<출처 : 中国旅游报, 07/04>

○ 중국 문화관광부 대만 자유여행 금지 발표

- 중국 정부는 2011년 중국인 개인의 대만 자유여행을 허가하면서 베이징(北京), 텐진(天津), 상하이(上海), 샤먼(厦门) 등 47개 도시의 호적을 가진 주민의 대만 자유여행이 가능했음
- 하지만 대만과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문화관광부가 중국인 개인의 대만 자유여행을 금지하면서 8월 1일

부터 L과 G비자를 가진 단체여행만 가능

<출처 : 观察者网, 08/05>

○ 주하이(珠海)시 형친신구(横琴新区) 관광관련 산업 15%의 기업소득세율* 적용

- 중국 재정부·국가세무총국 "형친신구 관광관련 사업 기업소득세 우대혜택 통지"를 발표
- 주하이시 형친신구 내에 소재하는 관광관련 기업에게 15%의 기업소득세율을 적용하기로 함
- 우대세율을 적용받는 업종은 유원지, 아쿠아리움, 테마공원, 영화·TV 촬영지, 전시관, 박물관, 수상운동, 수상저공비행, 크루즈관광, 요트관광, 섬관광, 문화창의관광, 민속활동, 민박, 문화유산계승, 건과의료관광, 마이스, 관광객서비스센터, 관광정보 사이트 운영, 온라인상품판매·온라인 예약 및 결제 등 전자플랫폼 운영 등임

*중국의 기업소득세율 25%

<출처 : 新华网, 08/19>

○ 중국 상반기 해외여행 총 1,275억 달러 지출

- 국가외환관리국 「2019년 상반기 중국국제수지보고」 발표
- 지출 1,275억 달러 중 아시아 지역이

54%, 미주와 유럽이 각각 24%와 13%를 차지

<출처 : 中国新闻网, 09/29>

1-2. 대만

○ 대만 민진당 정부 관광산업에 올 8월부터 총 46억 대만달러 보조금 지원

- 중국 정부의 대만 자유여행금지에 따라 대만 관광산업 위기 봉착
- 관광산업 위기 해소를 위해 비자 면제, 야시장 활성화 등에 보조금 투입

<출처 : 国际在线, 9/10>

○ 대만-이탈리아 상호 e-Gate(자동 출입국심사) 사용

- 현재 대만의 e-Gate 사용국은 미국, 한국, 호주로 총 21만 명이 이용
- 대만은 관광객의 출입국 편의를 위해 e-Gate 사용국을 확대해나갈 계획

<출처 : 交通部觀光局, 9/26>

1-3. 홍콩

○ 홍콩 반정부 집회로 홍콩관광객 두 자리 수 감소

- 반정부집회로 인한 폭력적인 충돌로

관광객들 안전우려 증가

- Google 트렌드 데이터에 따르면 7월 말부터 검색어 “홍콩안전” 언급량 급증

<출처 : BBC, 8/12>

○ 홍콩관광청(HKTb) QTS인증가맹점 갱신수수료 면제

- 관광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구호조치에 따라 2019년 10월 1일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 1년간 모든 QTS(Quality Tourism Services) 인증 가맹점에 대한 전체 갱신 수수료 면제, 신청비 50% 할인
- 지원조치를 통해 업계의 운영비용을 완화시키는 효과 기대

<출처 : QTS사무국 · 홍콩관광청, 9/12>

II. 일본시장

○ 일본 관광청, 관광 분야에서 여성 활약 추진을 위한 검토회 개최

- 여성 활약을 통한 관광 선진국에 맞는 대응 강화를 목표로 관광 분야에서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 조성, 여성인재 육성 방안, 여성 인력의 확보 등을 주제로 관광 분야의 여성 활약 추진을 위한 검토회 개최
- 관광업체들이 여성에게 더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관리직 고용을

포함한 인재 육성을 위한 노력 등을 통해 조직의 다양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관광객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질 높은 관광 서비스를 제공

- 또한 최근 관광은 일본 경제를 지탱하는 산업의 하나로 성장함에 따라 관광 분야에서의 새로운 취업 기회가 증가하고 있음을 널리 알림과 동시에 다양한 여성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출처 : 일본관광청, 8/19>

○ 한중일 관광장관회의 개최, 공동선언문 채택

- ‘한중일 관광장관회의’는 한중일 3국이 관광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순차적으로 개최(日→中→韓)하고 있는 정부 간 회의임. 한중일 관광 당국은 지난 여덟 차례에 걸친 3국 합동회의 및 양자회의를 통해 관광교류 협력 등의 분야에서 국가 및 민간 간 교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공동 사업을 추진해왔음
- 한중일 장관은 삼국간의 관광 교류 및 협력을 통해 동북아 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이끌어내기로 협의하고, 관광교류를 통한 ‘평화’, ‘포용적 성장’, ‘미래 선도’의

내용이 담긴 한·중·일 관광장관 공동선언문을 채택함

<출처 : 정부24, 8/30>

○ 한국, 일본관광시장 강타

- 2019년 8월 방일 한국인 관광객 수는 308,000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48% 감소함. 이로 인해 지진과 태풍이 발생하여 관광객이 감소하였던 지난해 9월 이후, 처음으로 일본 전체 관광객 수가 약 2.2% 감소함
- 타바타 히로시 일본 관광청장은 9월 18일 기자회견에서 한국발 일본행 항공노선이 축소되고 있고, 강엔화 추세가 지속되어 한국인 관광객의 귀환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밝혔음

<출처 : NHK, 9/24>

III. 동남아시아

3-1. 베트남

-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 베트남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10개 관광지 중 하나로 선정
- 8월 20일 하노이 관광청이 주최한 「세계관광개발 동향과 베트남 관광에 대한 영향」이라는 주제로 발표

- 베트남 관광연구개발국 소장 응우옌 안 뚜안(Nguyen Anh Tuan)은 베트남은 2015년 800만 명의 외국인 방문객을 맞았고 2018년에는 1,550만 명 방문, 3년 만에 외래 관광객 수가 두 배가 되었고 2019년 방문객 수는 1,750만에서 1,8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

<출처 : Nhan dan online, 8/21>

○ 베트남, 인도와 관광협력 강화

- 인도 판산 차우 베트남 대사는 8월 28일 베트남 관광진흥로드쇼에서 양국 간 상호 이해와 신뢰증진을 위해 관광과 인적교류가 전략적 파트너십의 핵심임을 확인
- 양국 간 두 직항 항공편(콜카타-하노이, 하노이-뉴델리)이 개설될 예정임을 발표. 이 노선이 양국 간 관광, 경제, 무역 및 투자분야 협력 증진 기대

<출처 : Nhan dan online, 8/28>

3-2. 인도네시아

○ 원더풀 인도네시아 「디지털 투어리즘 4.0」

- 지난 2월, 인도네시아 관광부 주관 국가조정위원회 개최
- 인도네시아 관광부 장관 아리프 야흐야(Arief Yahya)는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발맞춰 관광산업도 새롭게 변모해야 함을 강조

- IT와 디지털 신기술(ICT 등)을 관광에 도입하는 것은 밀레니얼 세대, 외국인 관광객 모객에 큰 도움이 될 것. 궁극적으로 인도네시아 관광의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를 밝힘

<출처 : 인도네시아 관광부, 7/4>

○ 조코 위도도 대통령, 관광성장을 위해 10개의 새로운 발리 계획 ('10 New Balis' Plan) 추진

- 인도네시아의 대표 관광지이자 가장 성공한 관광지인 발리를 벤치마크 하여 인도네시아 내에 10개의 새로운 대표 관광지 건설 계획
- 10개의 새로운 발리 : Lake Toba, Tanjung Lesung, Tanjung Kelayang, Kepulauan Seribu, Borobudur temple, Mount Bromo, Mandalika, Labuan Bajo, Wakatobi, Morotai Island (출처 : Straits Times, 2017/10/10)

<출처 : 론리플래닛, 8/16>

3-3. 싱가포르

○ 센토사-브라니 종합계획에 따라 9천 싱가포르달러(약 6천 4백만 미국달러) 테마 거리 조성

- 8월 리센룽 총리가 센토사 섬과

인근 브라니(Pulau Brani) 지역
활성화를 위한 센토사-브라니 종합
계획(Sentosa-Brani masterplan)을
발표. 이에 따라 연말부터 테마
거리 조성 및 건설에 착수할 계획

- 종합계획에 따르면 테마 통로를
비롯하여 총 5개의 지역이 조성될
계획이며, 총 건설면적은 3만
제곱미터(축구장 5개 반 크기)에
달함
- 테마 거리는 2022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음

<출처 : StraitsTimes, 9/20>

○ 싱가포르관광청, 일본 대상으로 본격적인 관광마케팅 전개

- 1990년대 싱가포르 관광시장을
점령했던 일본을 겨냥하여 관광객
유치에 나설 계획
- 2017년 8월, 싱가포르관광청이
일본 도쿄에서 진행한 캠페인
(Passion Made Possible campaign)의
여파로 지난 3년 간 일본관광객
수 증가 추세에 있음
- 일본을 기점으로 기존 관광시장에
대한 새로운 분석과 전략이 필요한
점을 강조

<출처 : StraitsTimes, 9/28>

3-4. 말레이시아

○ 말레이시아 관광부, 민간 관광 홍보에 지원기금 운영

- 말레이시아 관광부는 말레이시아
관광 홍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민간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
(GAMELAN Malaysia 2019)을 운영할
계획
- 총 5백만 말레이시아 링깃(1천
2백만 USD 상당)에 달하는 해당
기금은 말레이시아 재무부의
협력을 통해 마련됨
- 관광업에 종사하는 민간업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통해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홍보마케
팅에 박차를 가할 예정

<출처 : 말레이시아관광청, 7/9>

○ 2019년 1월~5월 기준, 입국관광객 전년대비 4.8% 증가

- 중심시장(단거리)인 아세안 지역이
69.2%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고,
전년대비 4.7% 증가함. 이는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
관광객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한
결과로 보임
- 중거리시장의 경우 전체의 21.4%를
차지하여 전년대비 7.6%의 성장세를
보임. 대부분을 한중일 관광객이 차지

- 장거리시장(유럽, 미대륙)의 경우, 전년대비 0.2% 소폭 감소. 유럽 지역(특히,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 스웨덴) 직항노선의 부족으로 인한 현상으로 보임

<출처 : 말레이시아관광청, 7/9>

○ 말레이시아관광청, 비짓 말레이시아 2020 캠페인을 위한 대중매체 플랫폼 연계 프로그램 운영

- 말레이시아 정부 주도로 추진되는 ‘비짓 말레이시아 2020(Visit Malaysia 2020)’ 캠페인의 성공을 위해 25명의 대중매체(신문사, 잡지사, 소셜네트워크 플랫폼) 대표들을 대상으로 대중매체 플랫폼 연계 프로그램 운영
- 프로그램은 말레이시아의 대표 관광지 중 케다(Kedah) 지역을 중심으로 관광상품 홍보와 체험을 중심으로 구성
- 관광청과 민간부문, 대중매체 간의 협력체계 조성을 위한 자리 마련이 주요 목적

<출처 : 말레이시아관광청, 7/10>

○ 2019년 상반기, 1천 3백만 관광객이 말레이시아 방문하여 99억 미국 달러 상당의 경제 수익 창출

- 전년대비 방문객 수 4.9% 상승, 관광 수익 6.8% 상승, 1인당 지출비용

1.9% 증가, 체류일수 0.4박 증가

- 최다 방문 10개국 :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중국, 태국, 브루나이, 인도, 대한민국, 필리핀, 베트남, 일본 순
- 최대 1인당 지출 5개국 : 사우디아라비아(2,713달러), 영국(1,250달러), 캐나다(1095.43달러), 중국(1084.2달러), 미국(1082.27달러)
- 최장 체류 5개국 : 사우디아라비아(10.5박), 프랑스(8.7박), 독일(8.3박), 네덜란드(8.1박), 캐나다(7.7박)

<출처 : 말레이시아관광청, 8/23>

3-5. 태국

○ 피파트(Pipat Ratchakitprakan) 체육관광부 장관 단기 숙박에 대한 새로운 법률제정 추진

- 2019년 7월 10일 새로 구성된 내각의 체육관광부 장관으로 취임한 피파트 체육관광부 장관은 호텔업 인가를 받지 않은 숙박 시설에서 30일 미만의 단기 숙박을 제공하는 것을 불법으로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추진하겠다고 밝힘
- 태국에서는 2004년 시행된 호텔업법(Hotel Act)에서 30일 미만의

단기 임대는 호텔 라이선스가 없으면 불가능

- 2018년 5월 18일 방콕포스트(Bangkok Post)는 에어비앤비(Airbnb) 등에서 30일 미만의 숙박을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고 보도했음
- 이에 따라 호텔 라이선스를 취득할 수 있는 기준에 맞지 않은 민박 시설이나 애초부터 민박용이 아닌 콘도 등에서도 30일 미만의 단기 임대는 단속 대상이 됨

<출처 : 방콕스카이, 2019.7.29.>

○ 신규 국립공원 5개소 조성 완료

- 태국관광청(TAT)은 라마10세 즉위 후,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전국에 국립공원 5개소 조성하였음을 발표함
- 이는 태국의 20년 국가전략계획에 입각한 것으로 2037년까지 산림 면적을 전국의 55%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함
- 태국에는 1962년 최초로 조성된 카오야이 국립공원 이후, 현재 133개의 국립공원이 있음

<출처 : tatnews, 08/06>

○ 태국 여행자보험 필수가입 추진

- 체육관광부는 국립병원의 자금

난을 줄이고자 모든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여행자 보험 가입을 강제할 계획을 발표

- 매년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무료 의료비는 연평균 2억 바트가 소요됨. 따라서 500바트 상당의 보험 패키지 구입을 의무화
- 해외 태국 공관에서 입국 비자를 신청하는 관광객에게 우선 적용하고, 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 관광객 적용은 추후 결정

<출처 : MTHAI, 08/13>

○ 100억 달러 경기부양자금 투입, 중국, 인도 무비자입국(안) 포함

- 동남아시아의 경제성장 침체 및 강한 바트화로 인한 자국 무역 이익 감소와 관광객 방문 감소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기부양 자금 투입 결정
- 2018년 기준, 전년대비 태국 방문 외국인 관광객 7.5%감소, 2019년 상반기 기준, 전기대비 중국인 관광객 5%감소 등 강한바트화로 인해, 외국인 관광객의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대체 관광시장 선호 증가
- 태국 관광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국과 인근 아시아 국가의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 2018년

12월에 2개월간 중국과 인도에
대해 한시적으로 면제하였던
비자수수료 제도를 확대하여 비
자 면제국에 포함 추진

- 2019년 경제성장을 3% 달성, 중국인
관광객 4천만 명 달성을 목표

<출처 : channelnewaisa.com, 8/16>